

##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Theories of Childhood Education in Sohak(小學)

문미옥\*

Moon, Mi Ok

류철선\*\*

Ryu, Chill Sun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ims, contents, and methods of early education in Sohak(小學) a textbook for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oson Dynasty.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6th Korean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in process) and the theories of education in Sohak. Sohak consists of Establishing the Education Process(入教), Clarifying the Cardinal Human Relationships(明倫), Reverencing for the Self(敬身), Examining Antiquity(稽古), Admirable Sayings(嘉言), and Exemplary Deeds(善行). The aim of education in Sohak was to preserve Sheng(性), i.e. human nature inherited from heaven. The contents of education in Sohak was divided into 6 groups: distinction by age and sex, health, basic life habits, private life, family life, and group life. Methods of education in Sohak was the consolidation of knowledge and conduct, education of self control, learning of exploration, learning of constructive models, learning of keep the stages and telling stories of the sayings of the saints.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혜천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 I. 서론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절실한 유아교육의 과제는 유아들에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불가피한 서구사회지향의 가치들을 수용하게 하면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혼과 정신을 잃지 않는 조화와 균형의 지혜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전통과 풍습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으로 자라나는 유아들에게 문화의 전통을 소중히 하여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서 세계에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통과 뿌리를 알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긍지를 갖는 것은 삶의 아름다운 자세이며 세계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오늘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반인륜적 사건들이 빈발하며 인성의 황폐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과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청되고 있다. 실질적 효과 효능만을 중시한 과학 기술 위주의 교육관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방향 지어 오던 전통적 가치 규범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음미해야 할 것이다.

옛 우리 조상들은 중용(中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등의 경전의 가르침이나 구전되어 온 옛 성현들의 말씀을 수시로 자녀에게 읽어주거나 이야기해 주거나 스스로 읽게 하는 교육을 하였다. 즉, 인간의 참된 모습, 삶의 궁극적 목적, 살아가는 바른 자세 등을 자녀가 물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시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동양의 경전들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된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동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에 관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문미옥·이혜상, 1995).

그러나 현대인들 중 대부분은 ‘이러한 경전들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산물인데 현대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의 경전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이 행한 문화말살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우리 문화를 일본문화 속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문화 없애기,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 낮추기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경전들을 평가절하 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없앴 것이다.

그밖에도 식민지시대 및 해방 이후 초기의 지식 엘리트층들이 미국에 유학하여 교육받고 미국문화, 즉 서양의 물질문화에 대한 선호사상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의 옛 것들은 현대 산업사회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낮추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서양 산업사회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자연과학 분야는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한국학의 발전은 미진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가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합당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외면하고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모두에서 서양 것을 모방하기에 급급할 때에 서구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동양의 전통 속에서 찾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 왔다. 이제 우리의 경전들을 재검토하여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차원에서 현대의 아동교육에 필요한 가치나 개념들을 창조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살아나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유아기부터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지니도록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1998).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동학분야에서의 우리전통서적연구는 그 숫자도 적을 뿐 아니라 연구 분야 및 방식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자의 과거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삼국·고려시대의 아동양육 혹은 아동기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신양재, 1994 a; 1994 b)들이 있으며, 조선시대 아동용·부녀자용 교재들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교육 중 일부분만을 발췌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 정도이다. 즉 아동교육원리·교육내용·정서 지능분석·어머니 역할·아동관 분석(김향은, 1995; 류점숙, 1989; 우남

희, 1999; 문미옥·김정준, 1991; 백혜리, 1997) 등의 연구주제를 여러 서적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교육의 어느 세부측면을 여러 서적을 통해 종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동교육의 대표적인 서적 각 권에 나타난 아동교육관·목적·내용·방법 등 아동교육과 관련된 총체적인 관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각 경전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첨가 삭제 또는 강조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밝히는 연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전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아동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교재였던 소학(小學)의 내용을 아동교육과정의 구성요소인 교육의 목적·내용·방법 측면을 현대 유아교육의 관점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의 목적·내용·방법별로 세부적인 하위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현대적 조명을 거쳐 도출해 낸 소학의 아동교육원리는 아동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아동교육의 대표적 교재였던 소학(小學)의 전편에 나타난 아동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을 분석하였다.

소학은 중국 남송시대의 주희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초학자들이 배워야 할 수신서로서 「논

어」와 「맹자」를 위시하여 「예기」의 〈곡례〉·〈학기〉·〈내칙〉·〈왕제〉·〈악기〉 등의 글과 「군자」, 「국어」 등 각종 경전과 역사자료들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소학의 내용구성은 서론부분(소학서제, 소학제사, 소학집주 총론), 입교, 명륜, 경신, 계고, 가언, 선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 부분은 소

학을 편찬하게된 이유와 소학의 교육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입교>는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생활의 규범교육이 아동과 어른,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행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특히 태어날 아이의 훌륭한 기질을 위한 태교를 위시하여, 아동을 위해 부덕 있는 부모의 신중한 선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명륜>은 모두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류를 밝힌 것으로서 「소학」의 전체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학」이 교육내용으로 오류를 그 주 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오류는 당시 사회의 인간관계의 윤리영역을 다 포괄하여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신>은 모두 4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내적, 외적 생활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윤리를 서술한 것이다. 이것도 또한 「소학」에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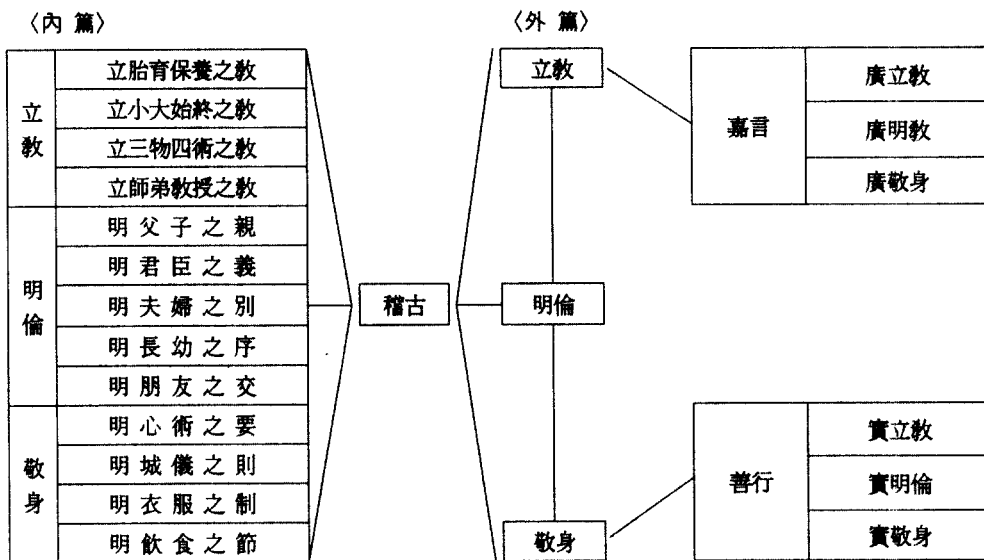
륜>과 마찬가지로 크게 의도하는 내용이며, 유학자들의 경(敬)의 관념이 그들의 윤리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답변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계교>는 모두 4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입교>, <명륜>, <경신> 세 편의 내용의 진리성을 과거 성현들의 사적에서 보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언>은 모두 41장, <선행>은 모두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교>, <명륜>, <경신>의 내용을 실증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상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조남국, 1995).

##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동양의 사유체계가 서양의 사유체계와 다르므로 서양의 교육이론 전개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

<표 1> 소학의 구조



는 것은 고유한 가치로운 측면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동양의 사유체계나 진술방법을 고수하려는 점이 지나치면 서구교육이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현대 유아교육 현실에서 상대평가적 이해를 충분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모두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학의 원문 내용기술 방식을 준수하여 내용을 분석하되 현대 유아교육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관점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 Ⅲ.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의 목적·내용·방법

#### 1. 교육목적

소학의 교육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을 보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이홍우, 1996). 여기서 의미하는 성(性)의 의미는 쇄소응대진퇴지절(灑掃應對進退之節) -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예의바른 생활을 하며 - 과 효제충신(孝悌忠信) -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 의 윤리를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하늘이 인간에 부여한 본성의 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학의 <입교>에는 성(性)을 소유한 성인(聖人)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입교> 수장(首章)은 소학의 목표와 편찬의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사선생은 ‘하늘이 명령해 준 것을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르는 것을 道라하고, 道를 品節한 것을 教라 한다’하였다. 하늘의 明命을 본받고 聖人の 法을 따라 이 책을 지어 스승된 자로 하여금 가르칠 바를 알게 하여 제자로 하여금 배울 바를 알게 하였다.”

이것은 하늘이 명령한 성(性)을 실현한 성인(聖人)이 도(道)를 내용으로 한 가르침을 본받아서 지은 이 책을 통하여 배우는 자에게는 배울 바를 알게 하고 스승된 자에게는 가르칠 바

를 알게 하는 것이 소학의 편찬의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학은 배우는 자가 이 소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인(聖人)이 품절해 놓은 도를 닦아서 성(性)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 바로 성인(聖人)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性, 道, 教로 표현하는 소학의 교육목적은 性, 道, 教로 유학사상을 집약 하였던 중용(中庸)의 내용(김용옥, 1994)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유학의 근본사상과 모든 연령의 인간교육목적과 어린이교육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육내용

앞서 II장에 제시된 각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학의 교육내용 분석은 연령·성별에 나타난 교육내용을 분석하되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범주인 건강생활·기본생활습관·개인생활·가정생활·집단생활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1) 연령·성별에 따른 교육내용

소학의 <입교> 1, 2장에서는 태아기 때부터 6·7살 등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이 차이가 있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열녀전에 따르면 옛날에는 부인이 아이를 배면 잠잘 때 옆으로 눕지 아니하고, 앉을 때 가장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설 때 비뚜로 서지 아니하고, 간특한 맛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바르지 않게 벤 것을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은 데는 앉지 아니하며, 눈으로는 간사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밤에는 소경으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행동이 단정하고, 제주와 덕성이 반드시 남보다 뛰어났다.” <입교>1장

“내측편에 이르기를 무릇 자식을 낳게되면... 자식이 능히 밥을 먹거든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며, 말을 할 줄 알게든, 사내아이는 빠르게, 계집아이는 느리게 대답하게 하며, 사내아이는 가족띠를 매게 하고, 계집아이는 비단 띠를 매게 한다. 여섯 살이 되면 셈하는 방법과 동서남북의 방위이름을 가르치게 한다. 일곱 살이 되면 집안의 문을 드나들거나 자리에 나아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드신 뒤에 하게 하여 사양하는 미덕을 가르치게 한다. 아홉 살이 되면 날짜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게 한다. 열 살이 되면 남자는 스승에게 나아가 사랑방에서 잠자며 글쓰기와 셈법을 배우게 한다. 이때에 웃은 비단이 아닌 저고리와 바지를 입게 하고, 예절은 스승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게 하며, ... 열세 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작으로 춤을 추게 한다. 열다섯살 이상이 되면 상으로 춤추게 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한다. ...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나다니지 아니하고, 언제나 집안에서 여자스승을 따라 부드러운 말씨와 유순하게 좇는 습관을 배워야 한다. 한편, 삼베를 짜고 누에를 치며 명주를 짜는 일 등 부녀가 할 일을 알뜰히 익혀 의복을 장만하도록 하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참관하면서 술, 초, 변두, 김치, 젓갈 등의 제물을 드려 행례를 도와야 한다.” <입교>2장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임신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인격형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태아기의 교육을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신의 초기에는 지고지선한 성(性)의 강화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자고, 앉고, 먹고, 보고, 듣는 것에 신중을 기했다. 이는 그만큼 사람이 탄생 초부터 바르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교육의 초석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어나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오른손 사용법, 말을 할 때가 되면 대답하는 방법, 6세가 되면 셈하는 방법과 방위의 이름 등, 대답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아는 빠르게 여아는 느리게 대답하도록 하고, 남녀가 같이 앉거나 같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하였고, 남아는 10세가 되면 사랑에 나아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남아에게 요구되는 재주로서 글쓰기·6예 등을 배우며, 여아는 학문적인 소양보다는 품성교육, 가사기술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 있는 교육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2) 건강생활

소학의 교육은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의 가장 가까운 기본이 되며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과 바른 식생활하기 등을 중요시한다. 이는 소학서제, 소학제사, <명륜> 등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옛날에 소학에서는 사람들에게 물 뿌려 소제하는 일, 남의 말에 응대하는 법, 몸가짐의 절도와 ... 이것은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정제하여, 나라를 다스려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소학서제>

“... 소학의 가르침은 물 뿌려 소제하고, 남의 말에 응대함이 예절에 맞으며... 행동이 조금이라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하는 데 있다...” <소학제사>

“... 세수와 양치질을 하며 머리를 빗고 치포건을 쓰며 비녀를 꽂고 상투를 한다. 옷을 입고 띠를 매며...” <명륜> 1장

“...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는다. 베개와 대자리를 견고 방과 마루, 뜰에 물을 뿌리고 청소한 다음 자리를 펴놓는다...” <명륜> 2장

“무릇 어른을 위하여 청소하는 예는 반드시 빗자루를 쓰레받기 위에 놓으며 소매로 앞을 가리고 쓸면서 뒤로 물러나 그 먼지가 장자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쓰레받기를 자기 쪽으로 향하여 거두어 담는다” <명륜> 76장

“...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하며...” <경신> 41장

“... 쉬어서 맛이 변한 밥과 문드러진 생선이나 썩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 빛깔이 나쁜 것을 먹지 않았으며 냄새가 나는 것을 먹지 않았으며, 제대로 요리가 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으며, 제철에 나는 것이 아니면 먹지 않았다. 또 반듯하게 썰지 않으면 먹지 않았으며,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경신> 42장

위의 내용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학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아동이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와 어른 섬김의 한 방법으로 물 뿌려 소제하는 즉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행동과 바른 식생활하기 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기본생활습관

소학 교육내용 중 인사·언어·식사·의복예절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내용은 소학서제로부터 명륜·경신 등의 전편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사·언어예절

소학의 교육은 아동들이 부모, 어른, 스승 등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공손한 태도로 적절하게 인사하며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사·언어예절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인사·언어예절은 <명륜> 등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고서 부모가 계신 곳으로 문안 인사를 간다. 계신 곳에 도착하면 숨소리를 낮추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입고 있는 옷이 더운지 찬지를 묻는다...” <명륜> 1장

“...부모가 명하면 빨리 응답하고 공손하게 대답한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서며 이리저리 돌아설 때는 조심하고 삼가며...” <명륜> 4장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아침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나갈 적에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뵈며, 가는 곳을 반드시 일정하이 있게 하며, 익히는 바를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게 하며, 평소에 말할 때에 늙었다고 일컫지 않아야 한다...” <명륜> 5장

“부모가 부르면 빨리 대답해야지 천천히 대답해서는 안 된다. 손에 일감을 잡고 있으면 던져버리고 입에 음식을 씹고 있으면 뱉어 버리고 가야 한다, 갈 때는 뛰어가야 하며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명륜> 15장

“...예의의 시작은 용체를 바르게 하며, 안색을 가지런히 하며 말과 명령을 순히 함에 있다...” <경신> 13장

“선생의 자리 앞에 앉으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며... 선생의 책·거문고·비파 등이 앞에 놓여 있으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것들을 넘어 다니지 않아야 하며... 얼굴빛을 바르게 가져야 하며...선생이 강의를 하실 때 자신의 용모를 바르게 하고 반드시 공손하게 들어야 한다...” <명륜> 77장

위의 내용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소학의 교육은 아동들이 부모·어른·스승 등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공손한 태도로 적절하게 인사하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인사·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예절을 강조하였다.

(2) 의복·음식예절

소학에서 의미하는 의복·음식예절은 경(敬)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음이 예(禮)에서 벗어나고 흐트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적제재, 즉 의식의 외면적인 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의식의 내면에 있는 예와 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경신>40장의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도를 논할 수 없다.”는 내용에 의해 확실시된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으로 의복·음식예절의 구체적인 상황, 즉 단정하고 대상과 상황에 적절하게 옷입기, 예의를 갖추어 먹기 등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얼굴빛이 안정돼 있으면 마음도 반드시 경건해지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옷매무새와 띠를 항상 단정히 해야 한다...”  
<입교>9장

“자식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의관에 흰 선을 두르지 않으며, 부모를 여윈 자식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사람은 의관에 빛깔 있는 색으로 선을 두르지 않는다” <경신>35장

“군자는 감색과 보랏빛으로 옷깃을 두르지 않았으며 붉은 빛과 자주 빛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않았다. 더운 여름에는 가는 갈포로 만든 홰옷을 반드시 겹에다 입고 외출했다”  
<경신>36장

“어린아이는 갓옷이나 비단옷을 입지 않으며 신코에 끈을 달아 꾸미지 않는다” <경신>39장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하며, 남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는 젓가락 따위를 사용함으로써 손을 적시지 않도록 한다. 밥을 많이 뜨지 말아야 하며 물을 마시듯이 합부로 들이마시지 말아야 한다...” <경신>41장

위의 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학의 교육은 당시의 사회 관습적인 기준에 비추어 단정하고 예(禮)의 기준에 합당하게 선택하여 착용하는 의복예절과 배부름과 포식을 구하지 않고 예를 지키는 음식예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4) 개인생활

소학의 교육은 자신의 수양과 덕을 닦는 데 강조 점을 둔다. 따라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의 실현에 있으며 그것을 미루어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통합의 정신을 담고 있다. 자신의 수양 즉 자신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예와 의에 따라 경건하게 함으로써 자기조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歡이 태만함을 이기는 자는 吉하고, 태만함이 歡을 이기는 자는 滅하며, 義가 욕심을 이기는 자는 順하고, 욕심이 義를 이기는 자는 凶하다.” <경신>1장

“오만함을 키워서는 안되며, 욕심을 방종하게 해서는 안되며, 뜻을 자만하게 해서는 안되며, 즐거움을 극도로 해서는 안 된다. 賢者는 친하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며, 사랑하면서도 그 악함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선함을 알며, 재물을 쌓되 능히 흠어주며 편안함을 편안히 여기되 義에 옮긴다. 재물에 임하여 구차히 얻으려 하지 말며, 난에 임하여 구차히 면하려 하지 말며, 다툼에 이김을 구하지 말며, 나눔에 많음을 구하지 말라.” <경신>2장



“에는 절도를 뛰어 넘지 않으며, 남을 공격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몸을 수양하고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한다.” <경신>9장

“군자는 간사한 소리와 현란한 색을 귀담아 듣거나 눈여겨보지 않으며… 귀·눈·코와 마음과 몸이 모두 이치에 맞고 바른 것을 따르도록 해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한다.” <경신>10장

“무릇 사람이 사람이 된 까닭은 禮儀가 있기 때문이니, 禮儀의 시작은 용체를 바르게 하며, 안색을 가지런히 하며, 말과 명령을 順히 함에 있다, 용체가 바르며, 안색이 가지런하며, 말과 명령이 순한 뒤에야 禮儀가 구비되니…” <경신>13장

“발 모양은 무겁게 하며, 손 모양은 공손하게 하며, 눈 모양은 단정하게 하며, 입 모양은 그치며, 소리 모양은 고요하게 하며, 머리 모양은 곧게 하며, 숨쉬는 모양은 엄숙하게 하며, 서있는 모양은 덕스럽게 하며, 얼굴 모양은 장엄하게 해야 한다.” <경신>16장

위의 내용에서 제시하듯이 소학의 교육은 수신을 위하여 마음가짐·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태만하지 않은 공경하는 마음과 의로운 마음가지기, 감정과 욕구조절하기, 자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얼굴표정을 부드럽게 하기, 발모양부터 얼굴모양까지의 아홉가지 용모를 바르게 하기 등을 실천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 5) 가정생활

소학의 내용중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은 효도가 인(仁)의 본성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의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는 절대적 관계의 윤리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은 의미를 살펴보

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로움, 자애로움과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성스러움이 쌍무호혜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간주한 것이다.(한국국민윤리학회, 1995).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를 통한 효도가 기초가 되어야 부부, 장유, 봉우간의 긍정적인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도를 인(仁)을 실천하는 시발점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학의 <명륜>에서는 부부사이의 윤리, 부모자녀간, 형제, 친척간의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가족간에 서로 사랑·협력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녀사이에 분별이 있고 난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친해진 다음에 사람이 지켜야 할 의리가 생기고 의리가 생긴 다음에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가 있게 된다. 예의가 생긴 다음에 온갖 것이 안정되는 것이다. 남녀사이에 분별이 없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없다면 바로 짐승의 세계일 것이다” <명륜>62장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말해야 한다. 만약 간곡히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부모가 기뻐하면 다시 간곡히 말해야 한다...” <명륜>22장

“부모는 자식을 자애스럽게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며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온화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부모는 자애롭지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고, 아들은 효성스럽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만 벗처럼 권할 줄 알아야 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지만 화순 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온화하지만 의로워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유순하지만 바

른 도리로 섬겨야 한다… 이것을 ‘아름다운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명륜>104장

“부모와 형제들을 즐겁게 하지 못하면서 외부 사람들과 사귀려해서는 안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소원한 사람들과 멋대로 가까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집안의 작은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가나 천하의 큰일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지 않는다…”

<명륜>105장

“…형제사이에는 회묵하고 기쁘게 지내야 한다.”

<명륜> 90장

위의 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학의 교육은 가족간에 서로 사랑·협력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내용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6) 집단생활

소학의 내용 중 집단생활에 관한 내용은 오류를 바탕으로 한 가정생활의 확장이며, 의(義)로써 맺어진 수평적 윤리관계인 친구관계와 공경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어른·스승에 대한 아랫사람·제자의 예에 관한 봉우지교, 장유지서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소학의 교육내용은 친구간에 서로 존중하며 의견차이를 선하게 조정하는 방법, 어른과 스승에 대한 공경, 공공규칙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친구 사이는 간곡하게 선을 실천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권하며…” <명륜> 90장

“선을 행하도록 충고하고 격려하는 것이 친구에 대한 도리이다.” <명륜> 91장

“군자는 남들이 자신을 극진하게 환대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남들이 정성을 다해 대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벗과의 사귀를 온전하게 유지한다.” <명륜> 96장

“오늘날의 봉우들은 유순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가려 서로 친하여 어깨를 치고 옷소매를 붙잡으면서 의기가 투합했다고 여기고, 한마디 말이라도 합하지 않으면 화를 내니, 봉우간에는 그 서로 낮추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자 해야 한다. 그러므로 봉우 사이에는 그 공경을 주장하는 자라야 날로 친하여 효력을 얻음이 가장 빠르게 된다.” <가언>52장

“나이가 자기보다 배 이상 많은 사람은 아버지처럼 모시고 십년 이상 많은 사람은 형처럼 섬기고 오년이상 많은 사람이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건되 조금 뒤쳐져서 걸어간다.” <명륜> 72장

범익경의 좌우명에 말하기를, “첫째는 남이 서신을 부탁하거든 뜯어보거나 지체시키지 말며, 둘째는 남과 함께 앉았을 때에 남의 사사로운 글을 훑쳐보지 말며, 셋째는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감에 남의 글을 보지 말며, 넷째는 무릇 남의 물건을 빌림에 훼손시키거나 돌려주지 말며, 다섯째는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버리거나 취하지 말며, 여섯째는 남과 함께 거처할 때에 스스로 편리함을 가려 취하지 말며, 일곱째는 남의 부귀를 보고, 감탄하고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 것이니,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으면 마음썸의 어질지 못함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음에 크게 해로운 바가 있다. 이로 인하여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가언>78장

남전여씨의 향약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함께 약속을 한 자는 덕행과 사업을 서로 권면하며, 과실을 서로 바로 잡아주며, 예의의 풍속으로 서로 사귀며, 환난에 서로 구휼하여야 한다. 선한 일이 있으면 장부에 기록하고, 과실이 있거나 향약을 위반한 자를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 세 번 범하면 벌을 시행하되, 고치지 않는 자는 향약에서 제명한다.” <선행>7장

“젊은이는 가벼운 짐은 혼자지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져서 반백이 된 자가 짐을 들지 않게 해

야 한다.” <명륜>87장

“선생이 가르치면 제자는 이를 받아들여 은화하고 공손한 태도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에게서 배운 것을 극진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보면 따르고 의로운 일을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힘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입교> 9장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은... 밖에 나오면 뒷사람에게 공손해야 한다...” <입교> 10장

위의 내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학의 교육은 친구간에 서로 존중하며 의견차이를 선하게 조정하는 방법, 어른과 스승에 대한 공경, 공공규칙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기 등의 내용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교육방법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방법은 지행합일· 자기조절교육· 탐구학습· 단계적학습· 구성주의적 모방학습· 경전 들려주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소학의 교육방법은 소학서제· 소학제사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물 뿌리고 쓸며 웅하고 대답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공손하여 동작이 흑시라도 이에서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고 여력이 있거든 「시경」을 외우고 「서경」을 읽으며, 읊고 노래하며 춤추고 뛰어 생각이 흑시라도 이(쇄소용대진퇴지절과 효제충신)에서 넘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는 원리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행합일

소학의 교육방법은 아동을 교육하는 데 일상

생활의 작고 가까운 것을 실천하는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자라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기본가정은 아동은 마음과 지혜가 미성숙하여 주장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때 올바른 가르침은 아동의 마음과 지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그 행동이 몸에 익숙해져 어느덧 편안해지게 되며, 이는 현재의 생활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종사할 학문 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체득해둬야 할 성실한 태도형성이라는 관점을 중시했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반드시 어릴 때에 배우고 익히게 한 것은 그 익힘이 지혜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거슬러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해서이다.” <소학 서제>

“오늘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고 내일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면, 오래되면 자연히 견고해진다.” <가언>87장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존경하되) 異性(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처럼 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친구와 사귀되 말함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子夏)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 <입교>13장

“자로는 자기 마음속으로 하기로 한 일은 실행하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가 없었다.” <계고>40장

“책을 읽고 학문을 하는 까닭은 본래 마음을 열고 눈을 밝혀 행함에 편리하고자 해서이다... 세상 사람들은 글을 읽되 다만 그것을 말하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니 무인과 속된 아전들에게 함께 조소와 비방을 당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가언>80장

위의 내용이 제시하듯이 아동을 교육하는 데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자라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소학의 교육방법은 사고를 강조하는 인지발달이론과 외적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행동의 습관화(실천)와 그에 따른 지혜의 동시적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2) 자기조절교육

소학의 교육방법은 아동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노력과 마음가짐을 정돈하여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기조절 교육이다.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군자는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을 귀와 눈에 머물지 않게 하며,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를 마음에 접하지 않으며, 태만하고 사벽한 氣를 신체에 배풀지 아니하여, 귀와 눈과 코와 입과 마음의 知覺과 온갖 몸으로 하여금 모두 순하고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義를 행하여야 한다.” <경신> 10장

“안자(顔子)의 ‘네 가지를 금하는 공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 관한 경계에서는 禮가 아닌 것을 보는 것을 마땅히 제재해야 함을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마음은 본래 虛하니, 사물에 응함에 자취가 없다. 그것을 잡는데 요점이 있으니, 보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다. 가리움이 앞에서 교차하면 마음이 그리로 옮겨지니, 밖에서 제재하여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 오래되면 저절로 될 것이다. 듣기에 관한 경계에서는 禮가 아닌 것을 들으면 마음의 지각이 외물에 유인 당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화하여 正理가 망실되기 때문에 그 사악과 망녕됨을

밖에서 막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도리가 있음은 천성에 근본 하였건만 지각이 외물에 유인되어 변화해서 마침내 그 바름을 잃는다. 높은 저 선각자는 그칠 곳을 알아서 定함이 있다. 사악함을 막고 진실을 보존하여 예가 아니면 듣지 않는다. 말하기에 관한 경계에서는 말은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 사람 마음의 動함은 말로 인하여 퍼지게 되니, 발언함에 조급하고 망녕됨을 금해야 마음이 이에 고요하고 전일해진다. 하물며 말은 일상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호를 내기도 하니, 길흉과 광욕은 오직 말이 부르는 것이다. 말을 쉽게 함에 손상되면 허탄해지고, 번다함에 손상되면 지리해지며, 자신이 함부로 하면 남이 거스르고, 나가는 것이 어그러지면 돌아오는 것이 어긋나니, 법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 혼계하신 말씀은 공경할지이다. 행동하기에 관한 경계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기미를 잘 살펴야 함을 말하고 있다. 哲人は 기미를 알아 생각에 성실하게 하고, 志士는 행실에 힘써 행위에 지킨다. 이치를 따르면 넉넉하고 욕심을 따르면 위태로우니, 告次에도 능히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지켜라. 습관이 천성과 더불어 이루어지면 聖賢과 똑같이 돌아갈 것이다.” <가언>68장

위의 내용이 제시하듯이 소학의 교육방법에 있어 아동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보기·듣기 등 네 가지 경계를 통한 자기조절 교육은 아동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유아 단계에서는 유아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을 통하여 접하는 수많은 매스미디어의 환경적 자극을 정돈해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 (3) 탐구학습

소학의 교육방법은 천하의 사물은 이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부터 체도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 밝게 알아서 성(性)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이치를 깊이 생각해보거나 사물에 행동을 가하고 그 반응을 관찰하며 재구성하는 탐구학습을 강조한다.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 구체화된다.

“後生 중에 才性이 남보다 뛰어난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글을 읽음에 찾아 생각하고 미루어 궁구하는 자가 두려워할 만하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글을 읽음에는 다만 찾아 생각함이 두렵다.”하였으니, 의리는 정밀하고 깊으므로 오직 찾아 생각하고 뜻을 써야 얻을 수 있으니, 마음쓰지 아니하여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리가 없다. <가언>88장

“聖賢의 천 마디 말씀과 만 마디 말씀은 다만 사람들이 이미 놓아버린 마음을 가져다가 거두어서, 돌이켜 몸에 들어오게 하고자 할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능히 찾아 위를 향해 가서 아래로 배우며 위로 통달하게 된다.”<가언>63장

위의 내용이 제시하듯이 소학의 교육방법은 천하의 사물은 이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이치를 깊이 생각해보거나 사물에 행동을 가하고 그 반응을 관찰하며 재구성하는 등 찾아 생각하고 미루어 궁리하는 탐구학습을 강조한다.

(4) 단계적 학습

소학에서 중시하는 교육방법은 쇠소용대진퇴지절과 같은 일상생활의 작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배움을 시작해야 근본을 배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배움에 있어서 「소학」의 일과 「대학」의 일이 구분되어야 함을 말하기도 한다. 즉 「소학」에서는 쇠소·용대의 예절이 일이지

만 「대학」에서는 명덕·신민의 수기치인의 일인 것이다. 또한 소학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일상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인지(사고)도 아울러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것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고를 전개해서 나뉠대로의 논리적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발달단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君子는 사람을 가르침에 차례가 있다. 그리하여 먼저 작은 것과 가까운 것을 전해 준 뒤에 큰 것과 먼 것을 가르치니, 이는 먼저 가까운 것과 작은 것을 전해주고 먼 것과 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언>90장

“...어린 아동들은 배움의 등급상 먼저 배워서 안되는 시문짓기 따위의 일에 치중하여, 그 결과 이미 본령이 없고 다만 허다한 쓸데없는 잡동사니들만을 이해하고...”<소학집주총론>

위의 내용에서 제시하듯이 소학의 교육은 일상생활의 작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일상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인지발달도 아울러 이루어지도록 교육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고를 전개해 가는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한 단계적 학습을 강조한다.

(5) 구성주의적 모방학습

소학의 교육방법은 단순한 모방의 대상이라고 기보다는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의 내적 준거를 제시하는 수양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즉, 성인의 가르침을 자기자신의 학문과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 구성주의적 모방학습을 강조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여러 어머니와

可한 자를 가려뽑되, 반드시 너그럽고, 여유있으며,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온화하고 어질며 조심하며, 삼가고 말이 적은 자를 구하여 자식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입교>2장

“맹자의 어머니는 무덤근처에 살았다... 바로 이사를 해서 학교 근처에서 살았다. 그러자 맹자는 계기를 벌려놓고 인사를 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모습을 흉내내며... 맹자는 장성하자 학문을 닦아 마침내 큰 선비가 되었다.”<계고>2장

“사람이 어릴 때에는 부모를 사모하고, 여색을 좋아할 줄 알면 젊고 아름다운 소녀를 사모하고, 妻자가 있으면 처자를 사모하고, 벼슬하면 임금을 사모하고, 임금에게 뜻을 얻지 못하면 속이 탄다. 그러나 큰 효도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니, 50세가 되도록 사모한 자를 나(孟子)는 순임금에게서 보았노라.”<계고>6장

“공자가 당시 무성읍의 수령이 된 子遊에게 ‘너(子遊)는 人物을 얻었느냐?’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담대멸명이란 자가 있는데, 다닐 때에는 지름길을 따르지 않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일찍이 저의 집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계고>37장

“일찍 혼인하고 어려서 아내를 맞이함은 사람들에게 경박함을 가르치는 것이다.”<가언>41장

“公은 말하기를 ‘인생이 안으로 어진 부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으면서, 성공함이 있는 자는 드물다.’하였다.” <선행>1장

위의 내용에서 제시하듯이 소학의 교육은 지속적인 자기성장을 할 수 있는 수양의 이상적 모델을 구체적인 상황별로 모범적인 행동을 직접 실천한 모범인물을 제시하여 배우는 자들이 감화를 받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즉 아이를 키울 유모를 선택할 때는 부덕이 순수한자, 아이를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로서는 맹자의 어머니,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자기의 즐거움보다

는 부모의 마음에 순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순임금,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는 행동을 올바르게 하여 작은 이익을 보거나 빨리 하려는 뜻이 없고 자기 몸을 굽혀 남을 따르는 사사로움이 없는 담대멸명, 부모됨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찍 혼인하지 않는 것, 올바른 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부모의 모범과 밖에서 스승과 벗의 모범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6) 경전들려주기

소학에서는 성인의 언행과 사상이 담긴 고전의 가르침이나 구전되어 온 옛 성현들의 말씀을 아동에게 읽어주거나 이야기해 주거나 스스로 읽게 하는 교육을 중시한다. 이는 고전을 통하여 성인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마음과 생각의 준거로 삼아서 성인이나 현인의 이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방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詩를 배웠느냐?”, “詩(『詩經』)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말을 할 수 없다.”, “禮(『禮經』)를 배웠느냐?”, “禮를 배우지 않으면 몸을 세울 수 없다.”<계고>3장

“너는 『詩經』의 周南과 石南을 배웠느냐?”, “사람으로서 周南과 石南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바로 얼굴을 담에 대하고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계고>4장

“무릇 『論語』와 『孟子』를 볼 때는 우선 모름지기 熟讀하고 玩味하여 聖人の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절실히 하여야 한다. 다만 한바탕의 말로만 삼아서는 안된다. 이 두 책을 보아 자기에게 절실히 하면 종신토록 진실해질 것이다.”<가언>82장

“눈으로는 부정한 색을 보지 않으며 귀로는 부정한 도리를 듣지 않으며, 밤이면 약사인 봉사

로 하여금 시를 외우며 바른 옛 성인의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입교>1장

“날마다 옛 일을 기억하게 하여 지금과 옛날 것을 구애하지 않되, 반드시 孝悌忠信과 예의 염치 같은 등의 일을 먼저 들려주어야 한다. 예컨대, 황향(黃香)이 부모의 베갯머리에 부채 질함과, 육적(陸績)이 어머니를 드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접대 받은 꺾을 몰래 품음과, 숙오(叔傲)가 남몰래 덕을 쌓음(陰德)과 자로(子路)가 부모를 위해 쌀을 저은 것과 같은 따위를 다만 속세의 말과 같이 들려주면 곧 이 도리를 깨닫게 되며, 오래도록 하여 성숙해지면 德性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이다.”<가언>2장

위의 내용이 제시하듯이 성인의 언행과 사상

이 담긴 고전의 가르침이나 구전되어 온 옛 성현들의 말씀을 아동에게 읽어주거나 이야기해주거나 스스로 읽게 하는 경전들려주기 방법 - 시경과 예경 속에서 사리를 통달하게 하고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예절과 덕성을 굳게 하여 몸을 세우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근본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경험·체험도 필요하지만 성인의 언행이 담긴 경전을 숙독하고 완미하여 자신의 몸에 절실하게 체득하는 것도 필요하며, 태아가 태어나 후의 자녀교육을 위해서 고전을 들려주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통아동교육의 대표적인 교재였던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의 교육목적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을 소유한 성인(聖人)이 되는 데 있다고 본다. 또한 성인의 모습은 주변을 깨끗이 하고 예의 바른 생활을 하며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 교육법 제35조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현대유아교육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현대유아교육자들이 주장하는 유아교육의 목적과 소학에서의 아동교육목적들을 비교해 볼 때, 소학의 경우는 현대의 유아교육이 강조하는 조화로운 전인발달의 개념을 포함하되 궁극적인

인간교육목적은 어린이교육에서도 직접 강조하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性을 실현하는 교육은 인간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면서 어린이 교육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유아를 위한 교육의 목적도 인간 전 삶의 교육목적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인간 삶의 가치 자체를 강조한 우리의 전통적 아동 목적관은 현대의 유아교육자들에게 유아교육목적들을 단기적으로 설정하거나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또는 상급학교에서의 과제를 앞당겨 습득하는 데 두기보다는 인간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항상 부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소학의 교육내용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내용, 건강생활, 기본생활습관, 개인생활, 가정생활, 집단생활로 분류할 수 있다.

소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교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교육

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임신했을 때의 마음가짐·몸가짐이 태어날 아이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태아기 교육을 중시한 점이다. 최근에 이르러 현대 서구의 유아교육학·간호학에서도 태교는 임신이전의 준비시기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가족의 보다 적극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노력이며 심리적 요소 이상의 성격, 인격, 인지, 감정, 안전도모 및 생물학적 조절의 차원까지를 내포하는 총체적·포괄적 건강추구 행위의 관점(장순복 외, 1996; 김순이·류철선, 1997)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강조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소화의 경우는 입교편 첫 장에서 태교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진술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태교에서의 소화의 관점은 임신중절이 성행하고, 유아교육의 대상을 출생이후 중에서도 3세부터 5세에 주력하고 있는 유아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는 유아교육자들이 태아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시사하며 임신직전기의 예비부모교육이나 초·중·고·대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부모준비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교육으로서 남아에게는 글쓰기, 6예 등을 배우도록 했으며, 여아에게는 품성교육, 가사기술 등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양성적인 성역할 개념에 대한 연구(홍연애, 1993), 사회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양성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가치관과 상치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어느 입장 하나만을 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녀의 차이는 가치의 고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특질을 가졌다

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특질을 고려한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을 구분하였던 점에서는 객관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의 당위성을 시사 받고, 현대의 양성 교육 주장에서는 변화하는 사회구조에의 융통성 있는 대처를 시사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남·녀 성역할 교육이 주요한 부분이므로 전통의 성역할과 현대의 성역할의 그 근본취지를 이해한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교사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건강생활의 내용으로는 어릴 때부터 아동이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와 어른섬김의 한 방법으로 물뿌려 소제하는 즉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는 행동과 바른 식생활하기 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장 필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자녀수 감소, 천재아기 선호증상, 온실이론, 인지중심의 교육 등에 의해 약화되어 왔으므로 앞으로 아동교육 현장에서 적극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기본생활습관의 내용으로는 아동들이 부모·어른·스승 등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공손한 태도로 적절하게 인사하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인사·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예절을 강조하였으며, 사회 관습적인 기준에 비추어 단정하고 예(禮)의 기준에 합당하게 선택하여 착용하는 의복예절과 배부름과 포식을 구하지 않고 예를 지키는 음식예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뿐 아니라 현대의 대부분의 유아교육학자들의 관점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화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구체적



진술은 교육자에게나 피교육자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예절과 서구적 예절이 혼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의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禮를 교육내용으로 유아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의 특성을 반영한 간편한 옷차림을 제시한 점은 그 당시의 서양의 성인의 축소판으로서의 아동관과 대비되는 아동중심의 아동관을 제시한 점으로도 의의가 크며, 오늘날의 교육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개인생활의 내용으로는 수신을 위하여 마음가짐·몸가짐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만하지 않은 공경하는 마음과 의로운 마음가지기, 감정과 욕구조절하기, 자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얼굴표정을 부드럽게 하기, 발 모양부터 얼굴모양까지의 아홉 가지 용모를 바르게 하기 등을 실천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적 사고방식 중, 자기주장이 강하고 욕구를 많이 충족시키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욕구 충족이 될수록 오히려 더 불만족스럽고, 자기주장을 할수록 공허함을 더 느끼기도 한다. 전통사상에 기반을 둔 소학에서 자기조절 즉 수신과 수양을 강조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복추구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실질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생활로서의 수신, 수양, 덕의 구현에 대한 내용은 현대 유아교육에서 매우 간과하였던 부분이므로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짧은 역사를 가진 서구의 인성 이론이나 정서이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전통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교육의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가정생활의 내용으로는 효도가 인(仁)의 본성에 입각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며, 孝가 기초가 되어야 부부·장유·봉우간의 긍정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가족은 이웃어른과 친구의 조인에 대해서조차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왜곡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성 및 사회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본다. 소학의 이러한 가르침을 현대 유아교육프로그램 구성에서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일 예를 들면, ‘나’ ‘가족’ 등의 주제에서, 孝가 인간의 본성이며 부모 아닌 다른 어른에게도 부모와 다름없게 대하는 것이 인간의 본모습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내용구성에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교육방법으로는 경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옛 조상 이야기 들려주기, 이에 대한 토론하기, 역할놀이 등의 활동방법을 활용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자식을 자애롭지만 엄격하게 가르쳐야 함을 강조한 소학의 관점은 자녀들로 하여금 예의를 모르고, 멋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자녀 제일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가정윤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사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소학을 통해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양육태도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독재적인 태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적절한 필요에 따라 엄함과 자애로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엄부와 자모의 조화를 강조하는 소학의 입장은 서양의 부모양육태도 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으로, 동양적 관점의 양육태도이론과 유형분류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소학의 부모양육

태도는 부모교육은 물론이며 유아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가르칠 때에도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집단생활의 내용으로는 소학은 친구간에 서로 존중하며 의견차이를 선하게 조정하는 방법, 어른과 스승에 대한 공경, 공공규칙을 지키고 서로 협력하기 등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주변의 어른과 스승을 자신의 부모처럼 공경하고 남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공동체 관계가 약화된 사회속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기, 집단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와 같은 공동체의 삶과 역사,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두레'라는 상징적 용어로 통합,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가 개인의 생산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동체가 곧 부모이며 스승인 셈이다. 따라서 소학의 기초질서였던 부모공경의 정신은 이제 공동체로 방향이 돌려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소학의 교육방법은 지행합일, 자기조절 교육, 탐구학습, 단계적 학습, 구성주의적 모방학습, 경전들려주기를 강조하고 있다.

지행합일의 방법으로는 아동을 교육하는데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자라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소학의 교육방법은 사고를 강조하는 인지발달이론과 외적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동의 습관화(실천)와 그에 따른 지혜의 동시적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지중심의 교육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크게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인지적 이해가 있어도 행함이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유아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서교육의 경우 정서에 대한 인지적 이해만 길러주거나 무조건적으로 선행을 강요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상기해야 할 선조의 가르침일 것이다.

탐구학습의 방법으로 소학에서는 천하의 사물은 이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물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관련서적을 참고하여 이치를 깊이 생각해보거나 사물에 행동을 가하고 그 반응을 관찰하며 재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아들의 탐구활동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궁리한 것을 직접 시도해 보고, 시도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간다고 보는 현대유아교육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소학은 일상생활의 작고 가까운 것으로부터, 일상의 행동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지적인 능력도 아울러 성장하도록 교육하며 순차적으로 사고를 전개해 가는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단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관심, 흥미, 발달수준에 따라 I·II·공통수준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그에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의 관점을 비롯한 현대 유아교육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미 오래 전에 전통서적에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주의적 모방학습 방법은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을 구체적인 상황별로 제시함으로써, 배우는 자들이 강화를 받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소학의 관점은 아동의 지식구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교사가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동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 즉 모방학습을 강조하되 단순모방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구성주의적 관점(DeVries with Kohlberg, 1987)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경전들려주기 방법은 성인의 언행과 사상이 담긴 고전의 가르침이나 구전되어 온 옛 성현들의 말씀을 아동에게 읽어주거나 이야기해 주거나 스스로 읽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구체적 사물에 유아가 행위를 가하고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 사회분위기에서는 가정과 아동교육 교육기관에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일등을 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단기적 인생 목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그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철학이나 가치교육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전통서적에 나타난 우리의 교육방법은, 연령을 고려하되 인간교육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삶의 가치, 인생의 목적, 인간된 삶의 바람직한 모습 등 매우 철학적인 측면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를 경전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이제 소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전들려주기 방법을 유

아교육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사상과 전통아동교육서가 현대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교육목적, 내용, 방법 순으로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목적은 단기적 목적관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로운 상태(聖人)를 지향하는 인생 전체 삶의 목적과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내용은 연령,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태아교육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또한 개인생활에서의 수신, 수양, 德의 구현, 가정생활에서의 孝의 강조, 집단생활에서의 信과 忠의 교육내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유아교육 내용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원고에서 살펴 본 소학 뿐 아니라 사소절, 동몽수지, 동몽선습, 아회원람 등 여러 다른 전통서적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들을 연구하고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교육방법은 지행합일의 강조, 仁을 통한 승화된 차원의 자기조절교육, 聖人을 모방하되 인간의 본성을 구성해가는 구성주의적 학습과 탐구학습의 강조, 경전들려주기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양의 교육방법 뿐 아니라 우리 전통의 교육방법들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순이·류철선(1997). 임산부의 태교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대한 간호학회지 제27권 제4호  
김용욱(1994). 도울선생 중용강의. 서울: 통나무

김향은(1995). 전통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원리. 아동학회지, 16(2), 65-80

- 교육법전편찬위원회(1996).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류점숙(1989). 전통사회의 아동교육. 대구: 중문출판사
- 문미옥·김정준(1991). 한국여성전통 교훈서에 나타난 어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논총 제6집
- 문미옥·이혜상(1995). 바른 부모 교육 프로그램. 서울: 서원
- 백혜리(1997).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양재(1994a). 고려시대 아동양육연구: 고려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4), 149-162
- 신양재(1994b).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난 아동기 교찰. 대한가정학회지, 32(5), 125-134
- 이기석(1997). 소학. 서울: 홍신문화사
- 오석종(1999). 소학의 덕교육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남희(1995).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아동학회지. 제20권 1호
- 윤호창(1999). 소학. 서울: 홍익출판사
- 조남국(1995). 李滉. 聖學十圖. 서울: 교육과학사
- 장순복·박영주·최연순·정재원(1996). 한국임부의 태교요인 - 동양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기관리 -. 간호학회지, 26(2), 345-358
- 홍연애(1993). 전형적·비전형적 성역할 VTR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DeVries, R. with L. Kohlberg(1987). *Programs of Early Education: the constructivist view*. N. Y.: Longman